

# 범죄 상태 재구성 ... 범인 추적

글\_ 함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장 ksham@yahoo.co.kr

**만**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익숙한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범죄 수사에 최면을 이용하는 사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에서 실시하는 것만도 일년에 약 300건이나 된다. 범죄 수사에 최면을 이용하는 것을 범죄면이라고 부르며, 심리 및 기억 등 관련 이론을 현장에 응용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범죄면의 목적은 범죄의 피해자 및 목격자가 사건에 따른 심리적 외상, 정서적 충격 그리고 목격 후 시간의 경과 등에 기인해 사건 관련 내용을 회상할 수 없을 때 최면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목격 당시의 상황적·심리적 특성을 되짚어줌으로써 사건 관련 내용을 회상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물론 범죄면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기억이 생생해지고, 또 관련 기억들을 완전히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친 것이다. 범죄면과 관련된 기억도 결국은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최면을 이용한 기억이든, 일상의 기억이든, 모두 인간의 기억과 관련지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면 상황에서 '최면을 유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회상 능력이 좋아져서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는 못한다.

범죄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보았는가? 또는 목격 당시 얼마나 특이한 것을, 얼마나 주의의를 기울여서, 어떤 감정 상태로, 얼마나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그리고 목격할 당시와 회상할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지났는가? 등에 따라 기억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범죄면과 관련해서, 피해자·목격자의 기억은 이들 요인들이 적

절하게 조화되어야만 정확하게 회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 피해자, 목격자 대상으로 기억 되살려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최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①최면은 잠이다. ②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신병자만 최면에 걸린다. ③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 ④최면현상은 유도해야만 일어난다. ⑤최면에 걸리면 최면자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한다. ⑥ 여자나 젊은 사람만 최면에 걸린다. ⑦다른 사람에게 잘 속는 사람만 최면에 걸린다. ⑧최면은 속임수다. ⑨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말한 것 모두 사실이 아니다. 위의 내용들은 최면에 대한 오해라고 부르는데, 최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소설,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최면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뿐이다.

그러면 최면 또는 최면 상태란 어떻게 설명되는가? 그 정의적 측면에서, 임상적으로는 최면 상태가 잠들기 직전의 상태와 유사한 이완(弛緩)된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의식이 변화된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피최면자들의 활동성이 감소된 상태일 뿐 의식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

이고, 의식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라는 것이며, 범죄면과 관련해서는 각성(覺醒) 상태에서 회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건 내용들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된 주의 집중 상태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은 흔히

탈주범 조세형이 강변 하수구에 버린 벨기에제 수갑 한쪽이 부러져 있다.



연합포토



녹화시스템

바다에 떠있는 빙산에 비유된다. 빙산의 표면이 물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수면 밑에는 거대한 덩어리가 숨겨져 있다. 인간의 의식도 이와 같아서 표면의식(表面意識)은 현실적인 판단 및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하지만 양적으로는 적은 부분일 뿐이며, 잠재의식(潛在意識)은 표면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기억과 경험들을 토대로 성격 및 성향, 기호, 감정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양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범칙면은 최면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들 두 영역간의 기억의 접근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무방할 것이다.

**완전 복사 이론** : 한 정신과 의사가 뇌수술을 하는 도중에 어떤 부위를 자극하였더니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마치 비디오 테이프와 같이 대뇌에 모두 저장되지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면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부분과 연결고리 즉,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뇌전환 이론** : 좌뇌와 우뇌가 각각 독립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모든 정보는 일단 우뇌를 통해 투입되며, 투입된 정보는 좌뇌로 이송되어 모든 논리적 판단이 좌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좌뇌의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저장하며, 따라서 우뇌를 활성화시키면 미처 기억하지 못하던 내용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구성 이론** : 사건을 목격한 후 나중에 얻게 된 정보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에 통합되어 기억이 재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원래의 사건에 이어 획득된 정보는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의 구성에 있어서 추가·변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억과 관련해서는 재구성 이론이 가장 설득력있어 보이기 는 하지만, 실제 장면에서는 어느 하나의 이론에 집착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최면과 관련된 기억을 설명하기도 한다.

### 범죄 혐의자의 '거짓 최면'도 밝혀내

범칙면은 범죄 현장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고, 단지 목격자나 피해자만 있을 때, 그 목격자 및 피해자에게 범죄 현장 상황 또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목격했고, 보고 외우려는 인지적 노력이 포함된 상태의 피해자 및 목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범칙면을 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최면 상태에서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지만 확증적 증거(예를 들어, 사체 유기 장소 등)에 대해 기억하지 못 할 때는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범칙면은 피범칙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소음 등의 외부 방해요인이 없는 방음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주로 팔걸이가 있고 뒤로 젖혀질 수 있는 편안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실시한다. 범칙면의 전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게 된다.

범칙면은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최면 전 대상자가 어떤 것을 목격했고, 범칙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면에 얼마나 반응적인지 등을 알아보고, 최면과 범칙면에 대해 설명을 하는 범칙면 전 면담, 둘째, 최면을 유도하고, 목격하게 된 시점으로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돌아가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회상하는 범칙면 면담, 끝으로 최면을 끝낸 후 최면 상태에서 회상한 내용을 정리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회상 내용을 수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범칙면 후 면담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범칙면으로 기억 능력이 향상되는가 여부는 함께 제시된 사례

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면과 기억 능력 향상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최면을 통한 기억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작화(作話), 잘못된 기억을 떠올리는 기억 오류, 그리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확신성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작화, 잘못된 기억 회상 그리고 확신성 증가 현상은 최면이 아닌 상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범죄면의 관점에서, 목격자가 심리적 외상을 입은 범죄 사건, 정서적 충격이 포함된 사건, 그리고 목격자가 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 외우려는 인지적 노력이 포함된 상황에서는 최면이 기억을 촉진시킨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피최면자의 회상에 대한 동기(動機) 및 기대(期待)가 높고, 회상될 자료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외상(心理的 外傷)과 연합되어 있다면, 최면을 이용해 심리적 안정과 이완을 유도하고, 목격할 당시의 상황을 심리적으로 재구성해줌으로써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회상할 가능성이 있다.

### 기억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성공

결국 범죄면에서는 목격할 당시의 상황을 심리적으로 재구성해주고, 한 가지 방식으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할 때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동기를 부여해주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을 말하라는 설명과 함께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과 그 역순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중요한 순간을 중심으로 그 앞·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말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 회상하도록 해준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억 향상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을 인지적 범죄면 기법이라고 부른다. 이 기법은 사건 수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며, 기억의 왜곡을 최소화시키면서 정확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면서,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거나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범죄 현장에 물리적 단서(지문 등)를 남겨 놓지 않는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각 사

건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피해자나 목격자들에게 정확한 사건 내용을 듣고 범죄를 재구성하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억 또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들의 기억 왜곡 요인을 최소화하며, 정확하고 중요한 해결 단서를 찾아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는데 범죄면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면으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로는 대구광역시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밤늦게 피의차량이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마침 목격자가 용의차량 번호를 1××9, 1×9× 혹은 ×1×9 등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범죄면 시술을 한 결과, 9601, 9610, 9016 등의 번호와 차량의 종류가 파란색 계통의 스쿠피이며, 옆에 'Y' 자 등이 새겨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회상해냄으로써 뺑소니 차량을 찾아낸 바 있다.

서울에서 회사에 배달된 우편물을 뜯고 책을 여는 순간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편물을 접수한 여직원을 대상으로 폭발과 동시에 불에 타 없어진 포장지의 발신자 주소와 이름 그리고 발신 우체국 소인에 대한 회상을 목적으로 범죄면을 실시하여 주소를 확인하고 범인을 체포한 사례도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럭을 운전하는 용의자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까지 태워다 준다고 유인하고, 하교하는 학생에게는 집에까지 데려다준다고 유인한 후 한적한 곳으로 끌고가 약 11회에 걸쳐 어린이를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어린이 2명에게 범죄면을 시술하여 차량의 번호판이 충남 ×× ㄴ 3066, 3866 등 3으로 시작해서 가운데 둥근숫자(6, 8, 0)가 있고, 마지막 두 숫자(둥근 형태)는 중복된다는 사실과 차량의 내부에 흰색 핸즈프리, 빨간색 자동차(방향제)의 바퀴가 하나 빠져있고, 강아지 인형이 있었으며, 시트가 찢어져있고, 조수석 바닥에 노란색 자루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범인의 목에 검은 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범인을 추적하여 검거한 일도 있다. 



글쓴이는 강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